



“얼마 만에 뛰는거야” 21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첫 팀간 연습경기에서 키움 박병호(가운데)가 2회초 1사 2·3루 이지역의 내야명볼 때 홈으로 파고들고 있다. 3루주자였던 박병호는 SK 제이미 로맥(오른쪽)에게 태그아웃을 당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두산과의 연습경기 2이닝 무실점

‘151km 위력투’ 이상규 물건이네!

(LG)

의무경찰 복무 이후 구속 끌어올려 간절함에 영상 찾아보며 색깔 찾아 류중일 감독은 통릴리프 투입 고민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LG 트윈스가 강속구 투수 이상규(24)의 알맞은 활용법을 찾고 있다.

자체 청백전을 통해 발굴한 원석이다. 과정과 결과 모두 좋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꾸준히 140km대 후반에서 형성됐고, 7경기(13.1이닝)서 평균자책점 2.03을 기록하며 류중일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특히 마무리투수 고우석(5)을 제외하면 마운드 전력에 피어날라가 드문 터라 유독 반가운 새 얼굴이다. 이때문에 청백전에서 선발(2회)과 구원(5회)을 오가며 다각도로 테스트를 받았다.

21일 두산 베어스와 치른 첫 팀간 연습경기에서 다시금 존재감을 밝혔다. 1-0으로 앞선 3회 선발투수 차우찬에게서 마운



LG 이상규가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연습경기 두산전에 팀의 2번째 투수로 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이날 최고 구속 151km를 찍으며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강속구 투수로 LG 마운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동아DB

드를 이어받은 이상규는 2이닝 1안타 1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를 찍었다. 빠른 구속을 앞세워 공격적 피칭이 이뤄졌다. 3회 첫 타자인 허경민에게 147km 직구를 결정구로 던져 히트싱 삼진을 숙이낸 뒤 김민태, 박건우와도 3구 이내에 승부를 봤다. 4회에도 커브, 슬라이더를 섞어 범타를 유도해 투구수는 24개에 그쳤다.

간절함이 무기다. 입단 1년 후인 2016년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한 때가 변화의 기점이었다. 야구에 대한 갈증으로 미국, 일본의 영상들을 찾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았고, LG에 복귀한 뒤에는 구속이 급상승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이도저도 아닌 선수였다. 어깨가 좋다, 힘이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130km대 후반의 공을 던졌다”고 돌아본 그는 여전히 “최고 구속보다는 평균 구속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긴 이닝 동안 꾸준한 구속으로 공을 던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류 감독은 선발과 통릴리프 중 이상규의 보직을 고민하고 있다. 베테랑 송은범이 선발전에 합류하면서 불펜에 공백이 생겼고, 팀 내 선발 자원도 풍족하지 않아서다. 이날 경기 전 류 감독은 “상태를 잘 지켜봐야겠지만 청백전에서 워낙 컨디션이 좋았다. 특히 팀 내 투수들 중 공이 가장 빠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불펜에서 긴 이닝을 맡길지 선발로 갈지 고민이다. 4~5이닝은 거뜰히 던지기를 싫다”고 덧붙였다.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꼭 붙잡을 생각이다. “선발과 불펜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상규는 “아무래도 추격조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약조절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막 전 엔트리 합류도 유력하다. 이에 그는 “꿈이 이뤄졌다. 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다”며 웃었다.

잠실 |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발열 체크 기본...인터뷰는 멀찌감치 떨어져

마스크 쓴 심판·하이파이브는 자체 코로나19가 낳은 연습경기 이색풍경

“거리는 두자!”

2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KT 위즈의 팀간 연습경기 1차전. 한화 선수단이 훈련을 준비할 때 이강철 KT 감독이 취재진과 마주했다. 인터뷰 중 한화 이강철 감독은 큰 목소리로 “감독님, 안녕하십니까”라며 ‘풀러 인사’를 했다. 이 감독은 “타 팀 선수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이성열에게 “반갑지만 거리는 두자”고 너스레를 떨었다.

국내서 팀간 맞대결이 열린 것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4차전 이후 178일만이다. 스포

링캠프에서 귀국한 구단들은 한 달 이상 고립된 채 청백전만 치렀다. 21일 KBO 이사회에서 개막일을 5월 5일로 확정했고, 이날부터 팀간 교류전도 시작했다. 이제 비로소 ‘시즌 모드’다.

한용덕 한화 감독은 “전날부터 가슴이 설렌다. 아무래도 청백전만 하다보니 나부터 집중력이 떨어졌다.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다”고 돌아봤다. 이 감독도 “선수단은 오늘 전력분석 미팅도 하는 등 시즌처럼 경기를 준비했다. 타 팀과 경기한다는 자체가 설렘”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양측 덕아웃에서 진행됐던 감독 인터뷰도 방식이 달라졌다. 취재진은 의사이팅존에 머물고, 양 팀 감독이 그 앞 그라운드로 나왔다. 한 감독은 “이색풍경이다. 야구인



프로야구 개막소식이 전해진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는 계속된다.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넷 월리엄스 KIA 감독(오른쪽 끝)이 취재진과 ‘분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에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웃었다.

반 년 만에 야구가 시작됐지만 방역 강도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 선수단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주간 리그를 중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 선수단은 이날 오전 9시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 집결해 발열 체크를 한 뒤 수원으로 이동했다. 수원에 도착한 뒤에도 다시 한 번 발열 검사를 하

는 등 둘다리도 두들겼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만큼 선수단은 물론 심판진까지 중계방송을 보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권영철 주심은 중계 마이크를 찬 채 포수 뒤에 섰고, 이 감독도 3회말 종료 후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생소한 풍경이 여럿 있었지만 우려곡절 끝에 야구가 돌아왔다.

수원 | 최익명 기자 ing17@donga.com

“외인 준비 이상무”...“팀당 144경기는 부담”

5월 5일 개막에 대한 현장 반응

KBO리그가 다시 뒀다. 5월 5일 무관중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다. 개막일이 확정되면서 현장은 한층 분주해졌다. 외국인선수의 컨디션 관리 및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자체 청백전

기간 중 외국인선수들의 실전감각을 미처 점검하지 못한 일부 구단은 어린이날 개막이 반갑다. 당초 함께 선택지에 있었던 5월 1일 개막과 비교하면 외국인선수들의 출전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서다.

LG 트윈스는 3명의 외국인선수들이 3월 넷째 주 차례로 입국했다. 나란히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뒤 이달 8, 9일에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었다. 불펜피칭, 라이브피칭

등의 과정을 거쳐 개막을 준비해야하는 투수 듀오 타일러 월슨, 케이시 켈리의 경우에는 실전 등판까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

21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연습경기를 앞두고 LG 류중일 감독은 “외국인선수들의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우리 팀의 숙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1일에 개막을 하면 외국인선수들을 쓸 수 없다. 5일 개막이라면 4일을 버니 아무래도 조금 낫다”며 “여유가 있으니 급하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와의 어린이날 맞대결로 시즌을 출발

하는 두산은 일찍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KBO가 정규시즌 팀당 144경기를 모두 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령탑들은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를 치르려면 팀 운영방식에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두산 김태형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력이나 선수 부상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시즌 중반에는 장마 등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KBO나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잠실 |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어린이날 개막 이후 변수들

시즌중 확진자 나올때 3주간 리그 중단 검토

2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프양재타워에서 열린 KBO 제4차 이사회를 통해 2020시즌 개막일이 최종 확정됐다. 개막일은 5월 5일이다.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되면 팀당 144경기 체제로 정규시즌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올스타 휴식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언제 발생할지 모를 변수를 간과할 순 없다. 무엇보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종식하지 않아 시즌 도중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이에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지금의 KBO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시즌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3주 정도 시즌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144경기 체제로 정리해놓고 경기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팀간 맞대결 횟수가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류 총장은 “그 부분(팀간 맞대결 횟수의 차이)은 감안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팀당 경기수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해 우승팀 두산 베어스가 키움 히어로즈, SK 와이번스와 맞대결하는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총 경기수는 10개 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다.

KBO의 육성선수 등록일은 5월 1일이다. 이 날짜를 넘겨 개막하는 만큼 10개 구단은 육성선수를 먼저 등록하고 개막전을 준비한다. 더블헤더를 치르면 엔트리를 1명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9월 1일부터 가능했던 확대엔트리(5명 추가)도 2연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가능토록 했다. 지금의 일정대로라면 8월 19일부터 2연전을 시작한다.

한편 현재 27일까지만 짜여진 팀간 연습경기 일정도 추가 편성된다. 류 총장은 “27일 이후에도 팀당 3경기 정도 연습경기를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전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정규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도곡동 | 강산 기자 posterb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머느리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매가 하이키 차는 그날까지!

직투기 예능의 끝판왕

이중TV

이중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